

새이념 창출, 지구촌화 대비의 핵

변화와 적응의 소용돌이 국제부대

I. 격변의 세계와 이념의 혼돈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냉전체제의 와해, 대소군사방위체제를 축으로 짜여졌던 기존 선진자본주의 국가관계의 변화, 주권국가간 새로운 협력, 연대체제의 형성, 새로운 다자간 경제질서의 모색 등 이제 세계는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소련을 비롯한 기존사회주의권의 붕괴이다. 자본주의의 또 한 인간해방의 이념이 될 수 없음이 객관화된 마당에 새로운 전망이 제시될 것이 없지 않기에 동구 사회주의의 체제가 붕괴함으로써 이념적 혼돈사태를 낳았지만 한편으로 기존의 동서냉전체제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고 국제간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주의적 실천의 과산은 해당국가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세계적 격변은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문명의 발달에 힘입은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과 이에 기초한 민중의 정치역량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해방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국제정세에서도 구질서의 기본 축이 변화되면서 일시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의 국제영향력 다름이 첨예해지고 여러 형태의 지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주권존중을 입각한 협력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민중의 삶과 한반도의 통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어느때보다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II. 교조탈피 시급한 진보운동

보수적 관점에서든 진보적 관점에서든 종래의 고정관념으로는 현재의 변화를 이해할 수도 또 그것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수도 없게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면서도 새로운 이념과 전망의 부재로 말미암아 혼돈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 교조로부터 탈피하여 시대에 맞는 창조적 이념을 창출하는 것은 세계의 진보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혼돈을 줄인다는 적극적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흔히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붕괴현상을 놓고 진보운동의 위기라고들 말한다. 물론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독재와 공산주의 이행론,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전위정당론, 북한의 주체사상 등에 입각했던 진보운동의 경우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크게 보아 과거의 이론들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진정한 인간해방의 이념을 창조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객관화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진보운동이 질적으로 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진보적 지평은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기존의 유산 또는 진보이론의 역사속에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III. 냉전체제의 종식과 지구촌 시대

그러면 현재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특징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 지구촌화 현상이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교통, 통신의 발달과 경제적 교류의 증대는 세계를 점차 하나의 생활단위로 통합해 나가고 있다. 더이상 일국적, 차원에 한정해서는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지구 반대편에서 생긴 일이라고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국내정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UN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지구촌화의 이면에는 여전히 강대국들의 주도권과 초국적 자본의 활동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차대전 이전의 식민체제와는 달리 각국간 호혜를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의 형성이라는 요구 또한 광범하다. 즉 대규모 국제전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맺고 맺기는 관계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의 성장을 도모하는 일정한 협력체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은 우리들도 하여금

기획시리즈 (完) —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국제관계의 능동적인 주체로 등장하여 협력과 평화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를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자주적이며 정통성있는 민주정부의 수립과 민중의 참의력 및 협력의 극대화 함께 하루빨리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 냉전체제의 종식과 국제간 평화 협력 기운의 고양이다. 이제 기존 체제간 이데올로기 대립은 국제관계에 있어 더이상 중요변수가 아니게 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권 붕

괴 사회주의의 이념 뿐만 아니라 선진자본주의 국가간의 군사동맹체제와 신보수주의의 물결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 물론 소련의 위기로 말미암아 미국의 주도성이 반사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 점은 겉표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미국이 국제적으로는 무력에 의해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미국 이외의 여러나라들은 미국의 핵우산이 예전처럼 절

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개발독재' 대신 정치적 다양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적 번영의 길을 도모해 나가야 함을 말해준다.

V. 사회개혁과 국제화 시대의 대비

다섯째, 지역적 경제협력기구의 강화와 협력화 현상이다. 독일, 프랑스 등 12개 회원국이 가맹한 EC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7개 회원국이 중심이된 EFTA가 EEA라는 하나의 유럽경제기구를



◇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한반도의 모순 해결을 위해 민족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냉전체제 와해, 한반도 민주화와 평화정착의 호기 폐쇄적 자력갱생 극복한 진보이념으로 사회개혁 이뤄야

실한 상황이 아니고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보다는 지역국가간의 경제통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제의하고는 장기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군주대중에 대한 공세적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신보수주의적 처방 대신에 새로운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IV. 파스 아메리카의 허와 실

셋째,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기

이런 현상은 초국적 자본의 운동방식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즉, 종래의 자본수출이나 상품수출 위주의 방식에서 기술위위와 생산공정의 분할에 기초한 완성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지역적 기업성을 대체하는 초국적 기업의 새로운 국제화전략이 불려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경제적 비중이

해 보았는데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북한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전면적 국유화, 계획경제가 인간해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현재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한다면 한다면 심각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 점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대처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 북한에서 유사한 징후가 가시화된다면 이 땅의 민중운동은 스스로의 면의 상관없이 또 한번의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자본주의화를 강요하며 흡수통일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북한이 능동적으로 내부의 비민주적 모순을 개혁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협력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도 양쪽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연합이나 연방을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명실상부한 통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 양쪽 체제의 모순을 모두 극복하는 창조적 통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점이 이땅의 민중운동이 새로운 진보이념을 창출해 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변혁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다.

VI. 창조적 통일을 준비해야

이상 다섯가지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정리

1. 소련사태후 국제질서의 변화(上)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2. 소련 사태후 국제 질서의 변화(下)
—중국·북한을 중심으로
3. 국제질서 변화와 제3세계
4. 한국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변화
5. 한국의 무역 및 국내의 경제 전망
6.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대응

있을 때만 민중은 정치적 주체로 설 수 있으며 그렇기에 국제정세에 대한 능동적 대처 또한 가능해진다.

즉, 집권대체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정당을 통해서 가시화되어야 한다. 보수적 정치이념은 권위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대중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다. 진보적 정치만이 정치와 대중운동을 결합시켜 사회화적 잠재력을 극대화 발휘하게 할 수 있다.

셋째, 국제화의 불가피성을 인식하여 민중운동의 시야를 한반도나 한반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넓혀야 한다.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경향과 초국적 자본의 논리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지만 제국주의론으로 국제현상을 전부 설명해 들어서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폐쇄적 자력갱생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중운동의 입장에서 지역차원과 세계차원의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제적인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화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군축, 비핵지대화, 주한미군철수, 평화정착정착 등 남북간의 오랜 적대적 관계를 우리의 월권적 개입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만큼 적극적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점은 남북정권 모두에게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현정권과 미국이 이 땅에 가중할 핵무기를 들여 놓은 것에 대해 비판하듯이 북한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VII. 위기와 기회의 변증법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우리 민중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VIII. 한국민중운동의 세계사적 의의

요컨대 격변하는 국제정세는 우리 민중운동에게 혼돈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 민중이 추진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한번의 좌절을 겪을 것인가도 우리 민중운동이 시대의 변화에 얼마나 창조적으로 적응하며 진보이념을 종부화시켜 낼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한반도의 모순 해결은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중운동의 주체적 발전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장 기 표
(민중당 정책위원장)

“암(癌)정복을 꿈꾸는 신약개발연구원”

암정복의 일보를 내딛으며...

여 보세요. 생명과학 연구개발실이지요? 이번엔 개발된 제3세대 항암제는 언제쯤 시판이 가능합니까? 미국에서 개발된 기존의 항암제보다 우수한 제3세대 항암제를 우리 힘으로 개발, 암정복의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소식이 전해진후 우리 연구실에서 전화기가 가장 바빠졌을만큼 세계적 연구성과에 대한 관심은 컸다. 세계 35개국이 특허출원, 빠른 시간내에 세계시장에 내놓게될 항암제 개발의 뒤에는 팀원 모두의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다. 연구결과와 진척이 없을때는 느끼던 좌절감... 그때마다, “신약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던 선배들의 독려와 함께 신입사원 시절의 해외전지훈련의 기억은 뜻깊은 연구원인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제 나의 목표는 AIDS정복

2년 전, 햇병아리 신입사원으로 참가했던 일본에서의 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



● '89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 데이전 중중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일본의약계를 돌아보며 이들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세계적 신약을 만들고야말겠다던 뜻깊은 의약개발연구원의 다짐들... 일본 구석구석을 몸으로 부딪치며 체득한 패기의 참뜻... 이 모든 체험들이 세계적인 큰일을 해내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을 일깨울수 있었던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 이제 항암제의 상품화에 이어 20세기의 흑사병 AIDS를 정복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보람이다. AIDS정복의 소식을 전하며 “암이나 AIDS가 불치병이란 말도 이제 옛말입니다”라고 말할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나의 하루는 힘찬 전진을 계속할 것이다.

신경 인더스트리
생명과학연구소 항암제팀
김 강 혁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직접 배우게 하십시오. 신장이 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국내 최초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세계 곳곳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배울수 있는 더욱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약개발에 헌신한 제3세대 항암제팀 가치고 독창 및 약효실험을 하는 모습.

SUNKYONG
鮮京그룹

(주)신경·신경인더스트리·(주)SKC·세라트위커칼·신경건설·(주)유공·유공해운·(주)유공가스·유공아코와약·(주)유공상사